

정복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땅: 중세 로맨스가 동원하는 여성의 사랑과 자발성의 역설

김선오

1. 사랑의 발명과 여성 자발성의 딜레마

중세 로맨스 장르에서 여성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궁정식 사랑의 규범 하에서, 여성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남성을 향한 사랑에 빠진다. 여성의 마음은 남성에 의해 존중받아야 할 것, 때로는 맹목적으로 얻어내야 할 것이 되었다. 중세 로맨스에서 대두된 남녀 간 사랑은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감정과 욕망에 스포트라이트를 던지며, 여성의 감정과 욕망을 남성 인물들과 텍스트 모두의 구심점에 놓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남성에 의해 주도된 장르인 중세 로맨스는 사랑에 빠진 여성과 그녀의 욕망을 어떻게 상상하고 표상하는가? 로맨스 텍스트 속 여성에게 사랑이라는 ‘자발적 욕망’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중세 로맨스 장르의 중심 제재로 남녀 간 사랑이 대두되고, 그 사랑이 여성의 자발적 욕망으로 표상되는 현상은 서사시에서 로맨스로의 장르적 이행과 동성유대에서 이성애로의 이행, 그리고 궁정식 사랑의 규범화라는 다층적 맥락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성애 문화의 발명』(*The Invention of Heterosexual Culture*)에서 조르주 텅(Georges Tin)은 이성애 관계의 정상성·규범성이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발명된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이성애 문화가 대두되기 이전 서유럽 봉건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상을 지녔던 관계 양식은 남성 전사 집단 내의 동성유대(homosociality)였다. 동성애와는 구분되는 남성 간 동성유대 관계에서 여성은 값진 재화였지만, 의미 있는 관계의 상대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12

세기경 귀족들 사이에서 궁정식 사랑의 문화가 도입되고(Tin 3-32), 교회에서 일부일처제 결혼을 성사(sacrament)로 만듦으로써 이성 간 결합을 단속하는 동시에 규범화하면서(Tin 63-66) 비로소 남녀 간 관계를 사랑으로 정의하는 이성에 이데올로기가 동성유대의 지배적 문화를 대체하기 시작한다. 이때 궁정식 사랑의 문화를 전파한 것이 새롭게 등장한 로맨스 장르이다. 사이먼 곤트(Simon Gaunt)는 로맨스 장르의 시원으로 꼽히는 『에네아스 이야기』(*Roman d'Enéas*)가 당대 문학에서 지배적이던 남성 간 유대를 주변화하며, 동시에 해당 장르의 성립 과정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From Epic to Romance” 25). 그는 『에네아스 이야기』가 반영하는 동성유대로부터 이성애로의 이행을 두고 “마치 에네아스는 처음에는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서사시적 영웅인 것만 같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남성성과 더불어) 한 명의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로맨스적 영웅으로 등장한다”(It is as if Eneas is initially an epic hero, defined in relation to other men; he then emerges as a romance hero, defined [along with his masculinity] through his relationship with a woman; *Gender and Genre* 83; sic.)고 정리한다.

새롭게 대두한 로맨스 장르는 이성에 규범을 통해 이전까지와는 다른 남성 주체를 주조한다. 곤트는 『에네아스 이야기』와 같은 초기 로맨스 텍스트는 섹슈얼리티, 특히 강제성의 탈을 쓰고 있는 이성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새로운 질서를 수립한다고 정리하며, 로맨스 장르 안에서 이성애자 남성 주체가 타자로 이해되는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한다(“From Epic to Romance” 4; *Gender and Genre* 90-91). 동성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사시 장르가 다른 남성들과의 동질성을 통해 남성 주체를 집단의 일부로 구성한다면, 로맨스 장르는 여성과의 이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를 통해 남성 주체를 구성하며, 집단과는 구분되는 정체성과 개인의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로맨스의 남성 주체의 정체성이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획득된다는 사실이다(*Gender and Genre* 91-92). 동시에 로맨스 장르의 이성에 관계를 정의하는 궁정식 사랑의 모델은 남성에게 여성과 이전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를 맺을 것을 주문한다. 조르주 뒤비(Georges Duby)는 로맨스가 결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젊은 귀족 남성들을 교

화시키고 이들의 성적 좌절이 귀족 여성, 나아가 궁정 사회에 미칠 위협을 단속하고 제한하기를 꾀했으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더 나은 방식으로 주선할 행동 규범”(a code of behaviour which would arrange relations between men and women in a better way)을 제시하는 “교육적”(pedagogic; *Eleanor of Aquitaine* 67) 장르였다고 지적한다. 로맨스가 제시하는 궁정식 사랑의 모델은 이전처럼 여성을 남성의 일방적 약탈이나 교환,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예의범절”(courtesy; *Eleanor of Aquitaine* 98)과 “교양의 규칙들”(rules of civility; *Eleanor of Aquitaine* 99)을 가르침으로써 남성이 여성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고 상호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를 맺도록 규범화한다(“Courtly Model” 258-59). 로맨스 장르의 이성에 규범이 여성을 남성 주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존재로 만든다면, 궁정식 사랑이라는 특수한 관계 양식은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하고, 이전까지는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 자신의 욕망과 자발성을 상상할 토대를 마련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세 로맨스 텍스트 『에네아스 이야기』, 『햄튼의 베비스』(*Bevis of Hampton*),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의 『기사 이야기』(*The Knight's Tale*)는 모두 지리적 외부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복자 기사들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로마 건국 시조 에네아스는 신들이 점지한 운명을 따라 트로이의 유민들을 이끌고 이탈리아 반도를 찾아 나서며, 라티움을 중심으로 한 롬바르디(Lombardy) 지방의 원주민들을 자신의 통치 하에 복속시킨다. 잉글랜드 햄튼 백작의 아들 베비스는 이교도들의 땅 아르메니아(Ermonie)에서 기사로 성장해 서유럽 바깥 세계를 제패하고, 중국에는 아르메니아에서 잉글랜드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정복하고 그 통치권을 친척과 아들들에게 배분한다. 아테네(Athenes)의 기사 왕 테세우스(Theseus)는 아마존 여전사들의 나라 스키타아(Scythia)를 정벌하고 개선길에 테베(Thebes) 역시 정복한 뒤에 아테네로 돌아온다. 에네아스, 베비스, 테세우스는 모두 외부 세계를 누비며 타자를 정복하고 통제권을 행사하는 힘을 지닌 남성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외부 세계와 타자는 단순히 무력으로써 맞서 싸우고 복속시키는 지리적 외부의 대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수전 크레인(Susan Crane)은 로맨스에서 여성의 성차가 때로 남성 주인공의 정체성과 대립하는 민족적, 종교적, 정치

적 차원의 타자성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에네아스의 트로이 혈통, 햄튼의 베비스의 기독교 신앙, 테세우스의 아테네적 지혜는 라티니족 라빈, 이교도 조시안, 그리고 아마존 히폴리타와의 대립적인 (나중에는 수용적인) 관계 속에서 명징해진다”(Eneas’ Trojan lineage, Bevis of Hampton’s Christianity, and Theseus’ Athenian wisdom gain clarity in oppositional [and then accommodating] relationships to the Latin Lavine, pagan Josian, and Amazon Hippolyta; *Gender and Romance* 18; sic.)고 설명한다. 이성애 관계에 주목하는 로맨스 텍스트로서 『에네아스 이야기』, 『햄튼의 베비스』, 『기사 이야기』는 가장 가깝고도 오래된 타자인 여성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 탐구하는 작품들이기도 하다. 로맨스 관습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정체성을 거꾸로 비추는 동시에 구성하는 타자로 기능한다. 이때 로맨스 장르가 수반하는 이성애 관계의 모델이 상호성을 전제하는 까닭에 여성은 단순히 남성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물리적 기호, 남성을 뒤집어 반영하는 거울을 넘어서서 내면에 자신의 의사와 욕망을 지닌 존재로 표상된다. 따라서 타자와의 대립과 수복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해 온 정복자들에게 여성 역시 정복의 대상이라면, 그 정복의 시도는 물리적 차원에 한정되는 한 언제나 필연적으로 불완전하다. 한때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의 내면, 여성 자신의 의사와 욕망은 사랑의 상호성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눈뜬 기사들에게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었으되 비로소 처음으로 주목하는 낯선 땅이다. 소유되고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는 달리 온전히 파악하거나 무력으로 복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땅이며, 그렇다고 외면하기에는 지나치게 중요한 땅이다. 로맨스 장르는 남성 주체의 서사를 위한 상대역으로 여성을 동원하고 그녀에게 사랑의 성립을 위한 자발성을 부여하되, 동시에 그 자발성을 서사 내에서 안전하게 포섭하고 통제할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에네아스 이야기』와 『햄튼의 베비스』, 『기사 이야기』는 이러한 쟁점 위에서 남성 주체의, 남성 주체를 위한 장르인 로맨스가 사랑을 매개로 여성과의 관계를 탐구하고, 여성 주체 역시 구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 『에네아스 이야기』: 자발성의 발명

12세기 로맨스 『에네아스 이야기』는 베르길리우스(Vergilius)의 서사시 『아이네이스』(*Aeneis*)를 다시 쓰면서 남성과 여성 간 새로운 관계의 모델을 모색하는 텍스트로 탈바꿈한다. 본디 아이네아스를 규정했던 것이 로마 건국의 사명에 대한 ‘경건함’(pietas)이었던 반면, 에네아스는 이탈리아의 통치권을 획득하고 건국 사명을 이행하는 동시에 라티니족 공주 라빈과의 사랑을 이루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한다. 바버라 놀란(Barbara Nolan)은 『에네아스 이야기』가 파리스(Paris)와 헬렌(Helen), 에네아스와 디도(Dido), 에네아스와 라빈이 맺는 이성애 관계의 사례를 통해 적법성, 상호성, 다른 의무들 간의 균형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어떤 사랑이 ‘어리석은 사랑’(fole amor)이고 어떤 사랑이 ‘정련된 사랑’(fine amor)인지를 정의하고 구분한다고 설명한다(83-96). 놀란의 분석에 따르면 사랑에 대한 『에네아스 이야기』의 이러한 구분과 평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며 적법한 사랑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에네아스와 라빈이 그러한 사랑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곤트의 지적대로 『에네아스 이야기』가 동성유대로부터 이성애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텍스트라면, 그 이행은 남성 간의 지나치게 친밀한 동성유대를 단속하는 한편, 이성애 관계를 서사의 전면에 배치하고, 나아가 서사와 분리되지 않는 남성 주인공의 정체성 형성에 이성애 관계가 결정적으로 기여하도록 구조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에네아스 이야기』가 추구하는 정련된 사랑은 이전까지의 이성애 관계와는 질적으로 달라야 하며, 동시에 궁극적으로 에네아스의 로마 건국의 사명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에네아스 이야기』는 파리스와 헬렌의 고전적 이성애 관계를 에네아스의 반면교사로 제시한다. 파리스와 헬렌, 메넬라우스(Menelaus)의 관계는 고전 서사시 전통 속에서 재현되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트로이의 멸망을 소개하는 순간부터 화자는 메넬라우스가 “아내에 대한 복수”(vengeance for his wife; 55)로 트로이에 전쟁을 일으키고 도시를 멸망시켰으며, 파리스가 헬렌을 차지한 일이 “그[메넬라우스]의 아내에게 가해진 부정 행위”(wrong done to his wife; 55)라 설명한다. 이후 파리스가 헬렌을 차지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증언에

서 헬렌은 비너스(Venus) 여신이 파리스에게 수여하는 보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녀[비너스]는 레이디 헬렌을 그에게 주었다. 그녀는 더 아름다운 여성을 찾을 수 없었다”(she gave Lady Helen: she found no woman more beautiful; 59)는 것이 설명의 전부다. 다른 증언에서 이는 파리스가 “메넬라우스의 아내를 훔친”(steal the wife of Menelaus; 121) 것이 된다. 텍스트가 제시하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증언 속에서, 관계에 대한 헬렌 자신의 의사나 자발성은 일관적으로 빠져 있다. 『에네아스 이야기』에서 헬렌은 남성들 사이에서 약탈되고 쟁취되거나 남성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아름답기 때문에 값진 재화로 기능할 뿐이다.

파리스와 헬렌의 관계와 달리 에네아스와 라빈의 사랑은 상호자발성을 전제로 하며, 특히 라빈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 본디 라티움 왕 라티누스(Latinus)의 딸인 라빈의 거취는 에네아스가 획득하고자 하는 라티움 땅의 통치권과 긴밀하게 묶여 있다. 라티누스가 본디 루툴리족 왕 투르누스(Turnus)에게 결혼시키기로 했던 라빈을 이방인 에네아스에게 약속하고, 투르누스가 라빈과 라티움의 통치권을 두고 에네아스와 대립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은 수면 위로 드러난다. 약속의 파기에 분개한 투르누스가 “이제 왕은 땅도 처녀도 돌려받을 수 없다”(now he can never take back either the land or the maiden; 124)고 하는 것, 두 세력 간의 분쟁이 지속되자 라티누스가 “결투에서 상대를 정복하는 쪽이 틀림없이 모든 것을 쟁취하는”(Whoever conquers the other in battle will have won all without fail; 190) 조건을 내놓는 것은 모두 라티움의 통치권과 라빈의 거취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라비니아(Lavinia)의 목소리가 부재하는 『아이네이스』에서 누가 “땅과 처녀”를 차지할지의 문제가 철저하게 두 남성 전사들 간의 분쟁인 반면, 『에네아스 이야기』에서는 라빈 자신의 의사가 문제의 전면에 배치된다. 투르누스가 라티움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라빈의 어머니는 딸에게 “투르누스가 고귀하니 그를 사랑하거라”(Turnus is noble, and you should love him; 210)고 종용하고, 사랑을 거부하던 라빈은 에네아스를 보는 순간 첫눈에 사랑에 빠져 “모든 욕망과 생각을 에네아스에게로”(all her desire and her thought toward Eneas; 215) 쏟으며, 그와 결혼하기를 간절히 욕망하기 시작한다.

라빈의 자발성은 『에네아스 이야기』가 제시하는 정복과 결혼 비전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에네아스가 라티움의 본디 트로이 선조 다르다누스(Dardanus)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신이 “오만한 마음에 다른 영토나 땅을 강제로 정복하고자 하는 것”(wishing to conquer, out of pride, another domain or another land by force; 241)이 아님을 역설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같은 논리는 에네아스와 라빈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라빈은 “결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에게 [내 사랑을] 알리고 싶어. 그러면 그는 나를 위해 싸움에 더 용맹하게 임할 거야”(before the battle takes place, I wish first to make him know, and he then will be more fierce in battle for my sake; 230)라는 판단을 내리고, 에네아스에게 “자신의 욕망”(her desire; 231)을 모두 고백하는 편지를 전달한다. 에네아스는 “라빈이 자신을 깊이 사랑한다”(Lavinia loved him deeply; 232)는 사실을 깨닫곤 “왕의 딸에 대한 사랑”(love for the king's daughter; 233)에 빠져 라빈과 동일한 사랑의 열병을 앓는다. 라빈이 에네아스보다 먼저 사랑에 빠지고, 어머니의 설득과 협박에도 이를 거두지 않으며, 스스로 에네아스에게 자기 욕망을 밝힘으로써 사랑을 부추긴다는 전개는 사랑에 임하는 라빈의 자발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에네아스의 정복과 결혼 서사를 가능케 하는 것은 에네아스를 향한 라빈의 자발적 욕망이 되는 셈이다. 막 사랑에 빠진 라빈과 에네아스가 성벽 너머로 애타게 시선을 나누는 것을 목격한 트로이인들이 “탑에 오가는 눈짓들을 보니, 그 뜻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라티니족들이 머지않아 우리를 성벽 안으로 받아들일 것”(There are such glances in the tower that—if their messages might be believed—the Latins will soon receive us in the city; 239)이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는 것은 에네아스의 로렌트 정복이 스스로 정복당하고자 하는 ‘자발적’ 수용을 통해 성사될 것임을 시사한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졌고 더 활기에 찼으니, 사랑을 위해 기꺼이 싸우겠다”(I am much stronger and more high-spirited, and will very gladly fight for it; 236)고 스스로 증언하듯, 에네아스는 문자 그대로 라빈을 향한 사랑에 힘입어 투르누스와의 결투에서 승리하고 정당한 통치권을 획득한다. 에네아스와 라빈의 상호 사랑을 전제한 결혼은 트로이와 라티움의 평화로운 결합과 등치된다. 마침내 에네아스가 라빈과 결혼할 때, “파리스가 트로이에서 헬렌을 가졌을 때도 에네아스가 로렌트에서 사랑을 얻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

다”(Never did Paris have greater joy when he had Helen in Troy than Eneas had when he had his love in Laurente; 256)는 서술은 두 사람의 결합을 앞서 트로이의 멸망을 야기했던 파리스의 사랑과 결정적으로 구분한다. 『에네아스 이야기』는 라빈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을 에네아스의 로마 건국에 필연적인 요소로 구성하고, 그러한 사랑의 모델을 이상적인 것으로 구조화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라티누스와 라빈 부녀의 욕망이 에네아스의 정당한 통치권과 계보를 확보하는 목적을 위해 이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에네아스 이야기』는 에네아스를 향한 라빈의 자발적 사랑과 결혼의 조건으로서의 상호 동의를 부각시키지만, 이는 라빈을 에네아스와 동등한 위상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라빈의 사랑과 결혼은 영토와 통치권의 적법한 계승이라는 가부장적 관심사에 철저하게 복무한다. 매릴린 데스먼드(Marilyn Desmond)는 라빈의 욕망이 사회 질서 및 지배 담론과 완전히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재현되며, 그녀가 가부장적·봉건적 질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여성 이성애를 수행한다고 지적하는데(116), 이는 에네아스와 라빈의 이성애 관계가 가부장적 구조 내에서 재편된 것에 불과함을 시사한다. 에네아스를 보는 순간 사랑의 불가사의한 힘에 사로잡힌 라빈뿐만 아니라, 그저 운명이라는 이유로 낯선 이방인을 사위 삼고자 한 라티누스의 동기 역시 비합리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가 그들[신들]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 우리 가문의 계보 역시 이름나게 만들어 줄 것”(He is descended of their lineage and will make our own line famous; 122)이라는 라티누스의 전망은 왕조의 계보를 세우고자 하는 에네아스의 목표와 공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에네아스가 죽음을 맞자 아스카니우스가 그의 뒤를 이어 통치”(when Eneas in turn came to his end, Ascanius reigned after him; 257)하며, 다시 “그의 뒤를 이어”(after him; 257) 대대로 왕들이 태어난다. “저승에서 앙키세스가 에네아스에게 묘사했던 바와 똑같이”(just as Anchises in hell described to Eneas; 257) 역사가 실현되는 것이다. 아스카니우스가 에네아스와 라빈 사이에서 나온 자손이 아니라 트로이에서부터 대동한 전처의 아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애당초 라빈을 에네아스와 결혼시켰던 라티누스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라티누스와 라빈 부녀의 혈통이 양

키세스, 에네아스, 아스카니우스로 이어지는 트로이의 부계 계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음이 분명해진다. 어떤 의미에서 『에네아스 이야기』는 이방인 정복자 에네아스를 위해 원주민 왕족 부녀의 욕망과 기대를 기능적으로 이용한 뒤 기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보다 앞서 에네아스와 사랑에 빠졌던 카르타고(Carthage) 여왕 디도(Dido)의 운명을 생각하면 경향성은 꽤 일관적이다. 풍랑에 지친 에네아스의 회복을 위해 비너스가 디도로 하여금 에네아스를 사랑하게 만들고, 에네아스가 불같은 사랑에 빠진 디도의 환대를 누리며 재충전한 뒤 그녀를 버리고 떠나가자, “명예가 더럽혀졌다”(dishonored; 87)는 비난을 받은 끝에 디도는 “나는 얼마나 어리석게 그를 받아들였나!”(How foolish I acted in receiving him!; 93)는 한탄과 함께 자결하는 것이다.

『에네아스 이야기』가 남성 주인공의 영웅 서사를 완성하는 필요조건으로 여성인물의 자발적 사랑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작 여성 자신은 그 사랑으로 인해 기만당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문제는 그저 『에네아스 이야기』가 유달리 등장인물들에게 불공평한 텍스트라는 점이 아니라, 『에네아스 이야기』가 동원하는 궁정식 사랑과 여성의 자발성이 구조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점에 있다. 안드레아스 카펠라누스(Andreas Cappellanus)의 『궁정식 사랑의 기술』(*The Art of Courtly Love*)은 궁정식 사랑의 규범 하에서 여성에게 사랑의 상대를 고를 자유는 있어도, 사랑하지 않을 자유는 주어져 있지 않다는 함정이 내재적으로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간 계층 남성이 더 높은 신분의 숙녀에게 구애하는 시나리오에서 숙녀는 “상대가 누구든 귀족 여성이 매섭고 예의바르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숙녀답지 못하니, 내 영혼은 그대의 궤변을 인내로 견디고 그대에게 부드러운 대답을 돌려줍니다”(since it is too unladylike for a noblewoman to speak harsh and discourteous words to anyone, no matter who he is, my soul endures with patience your crazy remarks and gives you a soft answer; 46)라고 밝힌다. 이는 여성이 남성의 집요한 구애를 물리치는 제스처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여성이 사랑에 빠지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중죄”(crime committed against him; 78)로 궁정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에게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보장되는 자발적 사랑의 자유가 남성에게 유리했음은 자명하다. 궁정식 사랑이 보장하고 인정하는 여성의 욕

망과 자유는 지극히 선별적이었으며, 남성의 욕망 앞에서 협상될 수 있는 것이었던 셈이다. 여성 자신의 선택과 욕망, 여성의 자발성은 다시 남성 사회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도록 포섭된다.

나아가 『에네아스 이야기』에서 라빈이 경험하는 사랑은 끊임없이 동원되는 여성의 자발성 개념 자체가 모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라빈은 이를 납치와 욕망이 혼재된 수사로 표현한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라빈은 자신을 “그[사랑]의 공격”(his assault; 228)에 함락하는 요새로 표현하며, 사랑이 “내 동의에 따라”(with my own consent; 228)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반하는 일”(against my will; 228)이라고 밝힌다. 라빈은 속절없이, 그러나 자발적으로 에네아스와 사랑에 빠진다. 이처럼 긍정적 사랑을 납치와 애욕, 자발성과 강제성이 교차되고 뒤섞여 구분되지 않는 경험으로 표상하는 것은 흔한 수사이지만, 여성에게 이는 수사의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캐서린 그래브달(Katheryn Gravdal)은 프랑스 로맨스에서 일찍이 13세기부터 “강탈”(ravishment)이라는 단어에 강간의 뉘앙스와 애욕의 뉘앙스가 융합되었으며, 둘 사이의 구분이 끊임없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한다(5). 그래브달에 따르면 교회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성적 행위를 단속하는 법을 성문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을 성문화했지만, 현대의 강간에 해당하는 강제된 성관계 자체는 죄로 규정하지 않았다(10). 법적으로는 단순 강간을 규정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고, 문학에서는 여성에 대한 강탈 자체가 성애화되면서, “강제된 성관계와 자발적 성관계, 사랑과 폭력 간 구분의 흐려짐”(blurring of distinctions between forced and voluntary sex, between love and violence; 11)이 상존했다. 여성에게 긍정적 사랑의 경험이 강탈의 경험과 분리될 수 없다면, 그리고 이 ‘황홀한 강탈’의 경험이 약속하는 자발성이 강제성을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로맨스 속 여성에게 긍정적 사랑은 결국 “원하던 원치 않든, 그녀는 사랑해야만 한다”(whether she wishes it or not, she must love; 215)는 라빈의 처지로 귀결되는지도 모른다.

3. 『햄튼의 베비스』: 자발성의 역습

『에네아스 이야기』의 파리스와 헬렌처럼, 14세기 로맨스 『햄튼의 베비스』에

서 최초의 갈등을 형성하고 서사를 시작하는 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 단속이 실패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에네아스와 같은 트로이 남성 파리스에 대한 비난에 주목했던 『에네아스』와 달리 『베비스』는 유사한 상황에서 여성의 악행에 초점을 맞춘다. 젊고 아름다운 베비스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은 햄튼 백작 가이(Gii) 경을 남편으로 맞은 뒤, “내 남편은 늙고 [밤]일을 하려 들지 않아서, 내 침실에 머무는 대신 온종일 교회에서 지낸다”(Me lord is olde and may noght werche, / Al dai him is lever at cherche, / Than in me bour; 58-60)고 불평한다. 그녀의 성적 좌절은 “내가 젊은 기사를 남편으로 맞았더라면 . . . 그는 나를 낮밤으로 사랑했을 것이요, 있는 힘껏 나를 끌어안고 내게 입 맞추고 나를 행복하게 해 줬을 것”(Hadde ich itaken a yong knight, / . . . / A wolde me loven dai and night, / Cleppen and kissen with al is might / And make me blis; 61-66)이라는 상상으로 이어진다. 이내 햄튼 백작부인은 독일(Almayne) 황제와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젊은 황제를 애인으로 맞음으로써 그 “사악한 생각”(misbethoughte; 55)을 실현한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일곱 살배기 베비스의 반응은 조숙한 만큼 직관적이다. 그는 어머니를 “더러운 창녀”(Vile houre; 302)라 부르고, 분노한 어머니의 명령으로 이교도들의 땅 아르메니아로 팔려가서는 그 곳의 왕 어민(Ermine)에게 “많은 여자들이 알고 보면 사악하다”(Wikked beth fele wimmen to fonde; 548)는 교훈을 얻었노라고 증언한다. 제니퍼 펠로우즈(Jennifer Fellows)는 『햄튼의 베비스』에서 베비스의 어머니가 전례 없이 가부장적 가치에 노골적인 위협으로 제시된다고 분석하는데(52), 부정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반”(tresoun; 190)하고 자신의 살해마저 기도하는 사건은 베비스의 시련과 갈등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베비스의 인식 세계에 여성 전반의 부정과 부도덕함이라는 여성혐오적 명제를 각인한다. 주인공인 베비스가 인식하는 『햄튼의 베비스』의 세계에서 여성의 부정은 원죄나 다름없다. 여성이 남편에게 불만을 느끼고 다른 남성과 내통하며, 나아가 남편에 대한 모반을 꾸미고 그를 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세계에는 상존한다.

『햄튼의 베비스』는 여성을 믿을 수 없다는 여성혐오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채, 남성을 향한 여성의 자발적 사랑을 상상한다. 베비스는 유년기의 경험으로 인해 뿌리 깊은 여성혐오를 내면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의 지적

처럼 혈통 계승과 유산 상속을 통한 봉건 귀족 가문의 존속에 여성의 존재는 여전히 필수적이다(*Insular Romance* 54).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로맨스 장르의 일반적 관습과 다르게 베비스는 궁정식 사랑이나 여성을 향한 예의범절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그는 아르메니아의 공주 조시안을 스스로없이 “이 교도 개”(hethene hounde; 692)라 부르며 모욕하거나, “부디 예의범절에 따라 나와 한두 마디만 나눠 주세요”(for the corteisie, / Spek with me a word or tweie!; 1183-84)라고 청하는 조시안을 짜증스럽게 내칠 뿐이다. 악명 높은 멧돼지 사냥에 성공한 베비스가 “그 머리를 조시안에게 가져가야겠다고 생각”(That heved a thoughte Josian bring; 832)하는 짧은 순간은, 어린 왕의 집사가 기사들을 거느리고 베비스를 습격하면서 이내 없던 일이 된다. 베비스의 아버지가 피병을 앓는 아내를 위해 멧돼지를 사냥하러 갔던 것, 그리고 거기에서 매복하고 있던 독일 황제의 습격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키는 이 사건이 지나간 후, 베비스는 멧돼지 머리를 조시안 대신 어린 왕에게 바친다. 전리품을 숙녀에게 바치고 그녀의 마음을 얻는 익숙한 전개를 따르기 직전, 베비스는 어머니의 배반을 떠올리기도 한 듯 조시안과의 러브 플롯에 오르기를 거부한다. 반면 베비스를 향한 “사랑의 열망”(Lovelonging; 897)에 빠진 조시안은 자신이 베비스의 짝이 될 가치가 있는 여성임을 혼자서,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 브라데몬드(Brademond)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 조시안의 아버지에게 “내게 그대의 딸을 아내로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내가 그녀를 전쟁으로 쟁취하겠소”(Yem me thee doughter to wive! / Yif thow me wernest, withouten faile, / I schel winne hire in plein bataile; 918-20)라고 협박하자, 조시안은 “베비스가 기사라면 아바마마를 능히 지킬 것”(wer Beves a knight, / A wolde defende thee wel inough; 934-35)이라며 브라데몬드를 물리치고 자신을 지킬 상대로 베비스를 직접 지명하고, 결투에서 승리한 베비스는 탑에서 조시안의 사랑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도 일방적인 조시안의 구애를 내내 외면하던 베비스는, 조시안이 “여자의 화살은 시위를 쉽게 떠난다고 하지요. 제 실언을 용서하세요”(wimmans bold is sone schote. / Forghem me, that ichave misede; 1192-93)라며 여성혐오적 언사로 스스로를 비난하고 베비스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을 반성하며,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기독교를 택하겠”(Cristendom for thee love take; 1196)다며 개종 의사

를 밝힐 때에야 그녀의 사랑에 호응한다.

베비스를 향한 일편단심의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 조시안은 끊임없이 가해지는 성적 위협들에 맞서 스스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텍스트가 여성의 순결·정조에 대해 보이는 지대한 관심은 “순결한 처녀가 아니면 아내를 맞지 않겠다”(I ne tok never wif, / Boute she were maide clene; 2196-67)는 베비스의 맹세나, 광폭한 용이 “그 땅에 사는 처녀가 목욕한”(A virgine wonede in that londe, / Hadde bathede in; 2805-06) 샘플에는 감히 다가가지 못한다는 설정들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단순한 물리적 수준의 단속으로는 여성의 부정을 방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베비스의 어머니가 방중한 바 있다. 그녀가 독일 황제를 직접 만나는 대신 햄튼 백작의 성에 머물면서 전령을 통해 그와 내통하고 모략을 꾸몄기 때문이다. 베비스의 어머니와 대비되는 대척점에서 조시안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스스로 단속하는 인물로 표상되는데, 코린 손더스(Corinne Saunders)는 베비스의 어머니의 악행의 배경에 늙은 남편과의 원치 않는 결혼이 있었다면, 능동적으로 구애하는 조시안이 자기 남편을 스스로 선택하고, 남편에 대한 정절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한다(165). 연인 베비스가 행방불명된 사이 이보르(Yvor) 왕과 강제로 결혼한 조시안은 “어떤 남자도 나를 뜻대로 할 수 없게 하는”(To me schel no man have welling; 1472) 마법 반지를 이용해 7년간 정조를 지킨다. “지난 7년 동안 당신은 왕비였고 매일 밤 왕이 당신 곁에 누웠는데, 당신이 어떻게 처녀일 수 있소?”(thow havest seve year ben a quene, And everi night a king be thee: / How mightow thanne maide be? 2198-2200)라고 묻는 베비스에게 그녀는 자신을 잉글랜드로 데려간 뒤에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거든 발가벗겨 속옷 차림으로 돌려보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시안의 순결 혹은 정절에 대한 시험/시련은 계속되는데, 조시안은 콜론(Coloine)에서는 베비스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잉글랜드로 떠난 사이 마일즈(Miles)라는 남자와 강제로 결혼식을 올리고 발가벗겨져 화형당할 위기에 처하며, 쌍둥이를 출산한 뒤에는 베비스의 시종 노릇을 하던 거인 아스코파트(Ascopart)에게 납치당해 이보르의 궁정으로 끌려간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은”(She thoughte for to kepe hire; 3157) 조시안은 마일즈와의 결혼 초야에 기지를 발휘해 그를 목 매달아 죽이고(3175-

3224), 아스코파트에게 붙잡혔을 때는 섭취하면 나병 환자처럼 보이는 약초를 먹고 왕이 흉측한 모습에 질려 자신을 포기하게 만든다(3668-3708). 사랑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여성혐오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베비스가 조시안의 곁을 자주 비우고, 서사 내내 “당신[조시안]의 의사를 거역하고”(aghenes thee wille; 3169) 그녀를 노리는 남성들의 성적 위협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조시안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베비스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킨다.

이러한 장치들은 기묘한 방식으로 조시안에게 절대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시안에게 실제로 남성 사회를 교란할 잠재력을 쥐어 주게 된다. 『베비스』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단속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여성에게 자발성을 부여하고, 여성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단속하는 상황을 상상한다. 조시안이 베비스 이외의 남성에게 정조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조시안의 사랑은 실제로 베비스에게 매우 효과적이고 편리한 장치로 기능한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는 조시안을 둘러싼 남성 사회가 그녀의 섹슈얼리티에 한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조시안의 동의 여부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조시안이 남성들의 위협으로부터 정조를 지키기 위해 기상천외한 도구와 능력, 지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부각된다. 조시안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남성들은 몇 년간의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도 그녀와 동침하지 못하거나, 결혼 초야에 죽음을 맞거나, 결혼모습을 흉측하게 만드는 눈속임에 속아 욕망을 잃는 등의 경험을 반복해야만 한다. 본디 베비스의 명마 아론델(Arondel)이나 명검 모글레이(Morgelai)처럼 재화와 같이 취급되었어야 할 조시안은, 순전히 주인공 베비스의 편의를 위한 자발성을 부여받은 뒤, 역으로 가부장제 사회를 구성하는 남성의 위력과 권위를 끊임없이 무력화시킨다. 여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조시안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발성은,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이루어지는 사회의 통제를 교란한다. 손더스는 이처럼 조시안이 순결을 지키는 서사에서 “순결”(Virginit; 170)과 “놀라운”(marvellous; 170) 일이 반복해서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시안이 기독교 여성 성인전을 떠올리게 한다고 분석한다(170-71). 『햄튼의 베비스』에서 순결은 단순한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을 지닌 미덕으로 반복해서 제시되는

데, 이러한 순결과 미덕의 연결은 조시안이 베비스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발적 개종을 결심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손더스의 지적에 더욱 힘을 신는다. 하지만 문제는 순결을 지킨 여성 성인들이 마침내 순교 끝에 신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과 달리, 베비스에게는 조시안이 마냥 달갑지만 앓은 존재라는 것이다.

조시안의 사랑은 사실상 일방적이고, 이 일방적 사랑을 위해 발휘되는 조시안의 자발성은 때로는 베비스마저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보니 J. 어윈(Bonnie J. Erwine)은 조시안이 사나운 사자(lion)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것,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 싸움을 도우려는 조시안에게 베비스가 폭력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주목한다. 어윈은 이 장면에서 조시안이 자발적으로 발휘하는 여성적 힘에 베비스가 남성성의 위협을 느낀다고 설명한다(372-73). 로맨스 장르의 규범에 따라, 남성 기사 베비스의 정체성의 구성에 여성인물인 조시안과의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사자들은 베비스의 시종 보네파스(Bonifas)를 어려움 없이 살해하지만 조시안은 건드리지 않는데, 이는 조시안의 “왕의 딸이자, 왕비인 동시에 처녀”(Kinges doughter, quene and maide both; 2393)라는 형용모순적 정체성 때문이다. 조시안이 왕비인 동시에 처녀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7년 동안의 원치 않는 결혼 생활 내내 정조를 지켰기 때문이며, 베비스에게도 위협적인 적수인 사자들로부터 유일하게 조시안만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원치 않는 상대와 동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녀의 고유한 능력이자 권한 때문이다. 베비스가 사자 두 마리와 동시에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조시안은 연인을 돕기 위해 “사자 한 마리의 목을 끌어안는”(Aboute the nekke she hent that oon; 2411)데, 그러자 베비스는 “여자가 나머지 한 마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 사자를 죽였다고는 뽐낼 수 없다”(I myght yelp of lytel prys, / There I had a lyon quelde, The while a woman another helde; 2414-16)며 도움을 사납게 뿌리친다. 전세가 불리해지고 다시 한 번 조시안이 베비스를 도우려 하자 그는 “그녀가 사자를 놓지 않으면, 사자와 마찬가지로 기꺼이 그녀를 죽일 것”(Boute she lete that lioun be, / A wolde hire sle in that destresse / Ase fain ase the liounesse; 2476-78)이라고 으박지른다. 어윈의 지적처럼, 연인을 향한 베비스의 방어적인 반응은 조시안의 능력이 베비스가 독점함으로써

남성성을 획득해야 할 전투의 영역마저 침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어원은 조시안이 베비스를 위해 자발적으로 개종을 선택함으로써 베비스가 조시안과 맺는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베비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만, 동시에 이를 위해 베비스가 얼마나 조시안의 자발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 또한 드러낸다고 지적한다(376-78). 주인공 베비스의 서사를 구성하기 위해 발현되는 조시안의 자발성은 때때로 단순히 남성 정체성을 구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상대역에게 주어진 몫을 넘어서며, 그럴 때 남성의 권위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조시안이 환기하는 이러한 불안은 잉글랜드로 돌아간 베비스가 조시안과 결혼한 뒤, 그의 관심이 영토 확장과 이교도 개종으로 옮겨가고 조시안이 텍스트에서 자취를 감출 때에야 사라진다.

『햄튼의 베비스』는 여성을 남성의 동반자가 아닌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본질적으로 불온한 존재인 여성을 남성에게 안전하게 종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발적 사랑을 활용한다. 조시안이 베비스를 향해 일편단심의 사랑과 충성심을 호소하며 증명하는 내내, 베비스는 중세 로맨스 전통에서도 두드러질 정도로 사랑과 여성에 대한 존중, 예의범절에는 관심이 없는 기사로 오직 무력을 통해서만 활약한다. 『햄튼의 베비스』의 세계에서 사랑은 오직 조시안에게만 전가되는 셈이다. 이처럼 『햄튼의 베비스』에서 사랑이 남성은 함양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 오직 여성만이 전유(專有)하는 것으로 표상되면서, 사랑이 여성에게 발휘하는 효과, 사랑과 여성 간 관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생긴다. 『햄튼의 베비스』가 중세 로맨스의 사랑이 사실상 여성 혼자서도 성립 가능한 케이스를 보여준다면, 『햄튼의 베비스』의 케이스는 중세 로맨스에서 사랑의 기능 중 큰 부분이 여성을 남성에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맹목적으로 종속시키는 방법을 마련하는 데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예측 불가능한 여성의 욕망으로부터 그 자발성과 맹목성을 거듭 확인하면서, 『햄튼의 베비스』는 여성의 욕망의 힘이 다시 역으로 남성성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끊임없이 환기한다.

4. 『기사 이야기』: 사랑이라는 이름의 정복

초서의 『기사 이야기』가 제시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에 대한

철저한 물리적 지배와 통제권을 행사한다. 처음부터 『기사 이야기』는 아테네의 왕이자 태양 아래 들도 없는 “정복자”(conquerour; 862)인 테세우스가 “지혜와 기사도”(his wysdom and his chivalrye; 865)로 아마존(Femenye)의 땅을 정복하고, 그 여왕 히폴리타(Ipolita)를 아내로 삼아 아테네로 돌아오는 에피소드로 시작한다. 돌아오는 길에 테세우스는 패자의 장례를 금지한 테베 또한 정복하는데, 이는 전사한 남편과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테베 여인들의 사연에 테세우스가 “연민의 마음”(herte pitous; 953)을 느끼고 “진정한 기사답게”(as he was trewe knyght; 959) 그들의 청을 들어 주었다는 동기로 설명된다. 테세우스는 여성을 무력으로 다스리는 동시에 그들에게 연민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가부장제 사회의 모범적인 통치자이며, 인륜을 저버린 통치자를 징벌하고 질서를 바로세우는 문명의 수호자이다. 일찍이 무력으로 정복한 땅의 여왕을 아내로 삼았던 그는 다른 남성에게 여성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가진다. 테베 출신의 두 젊은 기사 아르시트(Arcite)와 팔라몬(Palamon)이 히폴리타의 동생 에밀리(Emelye)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자신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그녀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혈투를 벌이자, 이를 발견한 테세우스는 마상 창 시합의 승자에게 에밀리를 아내로 주겠노라고 선언한다. 앞서 그가 기사들을 거느리고 아마존의 나라 스키티아를 정벌하고 여왕 히폴리타를 사로잡아 결혼했던 일의 반복이자 변주이다. 테세우스의 계획은 에밀리를 차지하기 위한 아르시트와 팔라몬 사이의 개인적 결투를 기사들 간의 모의 전쟁으로 확장시키고, 결투를 통한 사랑의 일방적 쟁취를 전쟁을 통한 정복과 긴밀하게 연결시킨다. 히폴리타를 아내로 삼기 위해 테세우스가 맞서 싸워야 했던 것이 여성 당사자 자신이었던 반면, 사상자를 내지 않는 모의 게임을 통해 테세우스는 남성끼리 소유권을 다투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에밀리를 소외시킴으로써 여성에 대한 통제권을 과시한다. 무력 행사를 통해 여성을 전리품으로 얻는 것이야말로 테세우스에게, 나아가 그의 시합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연인을 사랑하며 힘을 가진”(loveth paramours and hath his might; 2111-12) 이 세계의 기사들에게 익숙한 사랑의 쟁취 방식이다.

『기사 이야기』의 남성들에게 여성의 몸에 대한 물리적 소유권을 쟁취하는 일은 사랑과 구분되지 않는다. 기실 이 가능성은 아르시트가 아테네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 조건으로 테세우스의 탑에서 석방될 때 팔라몬이 그에게

“너는 우리 친족들을 전부 모아서 이 도시에 혹독한 전쟁을 일으켜 . . . 그녀 [에밀리]를 연인이자 아내로 삼을 수도 있다”(Assemblen all the folk of oure kyndrede, / And make a were so sharp on this citee / . . . / Thow mayst have hire to lady and to wyf; 1286-89)고 했을 때, 그리고 테세우스의 감옥에서 탈옥한 팔라몬이 그 가능성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자 마음먹었을 때 이미 암시된 바 있다. 앤젤라 J. 와일(Angela J. Weisl)은 『기사 이야기』에서 로맨스 장르 속 궁정식 사랑의 본질이 여성에게 자발성이나 능동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사시 장르의 전리품 취급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적시한다(59). 여성의 능동적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할 사랑조차 그 본질은 여성을 무력으로 쟁취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서사시와 로맨스 장르의 화해는 여성과 재화의 등치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마상 창 시험 경기를 앞두고 비너스의 신전에서 팔라몬이 “사랑”(love; 2260)을 달라고 기도하고, 마르스의 신전에서 아르시트가 “승리”(victorie; 2420)를 달라고 기도하자 비너스와 마르스 사이에는 다툼이 벌어진다. 로맨스 관습 속에서 결투의 승자와 사랑의 쟁취자를 분리해서 상상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턴(Saturn)이 두 신을 중재하게 되는데, 그 결과 팔라몬은 경기에서 패배하고도 에밀리를 차지하며, 아르시트는 승리하고도 사고를 당해 에밀리를 아내로 맞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다. 로맨스 구도에서 긴밀한 공모 관계를 유지하던 마르스와 비너스 간의 이러한 반목은 무력행사를 통해 여성을 쟁취하는 일과 여성의 사랑을 얻는 일을 구분하지 않는 장르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조명한다.

『기사 이야기』가 재현하는 이성애 관계에는 여성 자신의 의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서로 연인을 차지하겠다고 혈투를 벌이는 아르시트와 팔라몬에게 에밀리가 자신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를 두고 테세우스는 정작 “그녀는 이 법석에 관해 빠꾸기나 토끼보다도 아는 바가 없다”(She woot namore of al this hote fare, / . . . than woot a cokkow or an hare; 1809-10)고 지적하지만, 이는 새삼 에밀리 자신의 의사나 욕망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테세우스가 내리는 후속 조치는 오히려 여성 자신의 의사를 이성애 관계로부터 더욱 철저히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랑의 신”(god of love; 1785)의 권능을 찬탄한 뒤 그는 “내 처제 에밀리를 대변해 말하겠노라”(I speke as for my suster Emelye; 1833)며 에밀리

와의 상의 한 마디 없이 마상 창 시합의 승자에게 그녀를 내주겠노라고 선언한다. 에밀리가 유일하게 자신의 욕망을 발화하는 것은 남성들이 기획한 이성애 관계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고백할 때이다. 아르시트와 팔라몬이 각각 마르스와 비너스에게 기도를 올리는 동안 에밀리는 다이애나(Diana)의 신전을 찾아가 “평생 처녀이기를 원할 따름이지, 연인이 되고 싶지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지도 않다”(I / Desire to ben a mayden al my lyf, / Ne nevere wol I be no love ne wyf; 2305-06)는 욕망을 표현하고, “그들[아르시트와 팔라몬]의 마음을 내게서 돌려”(fro me turne away hir hertes; 2318) 달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장르 규범을 위반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서사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녀의 욕망은 남성들에게 인식되지 않으며, 다이애나마저 “높은 신들 사이에서 결정된바, . . . 너는 너로 말미암아 크나큰 근심과 슬픔에 시달리는 남자들 중 한 명과 결혼하게 될 것”(Among the goddes hye it is affermed, / . . . / Thou shalt ben wedded unto oon of tho / That han for thee so muchel care and wo; 2349-52)이라 예언한다. 『기사 이야기』에서 “처녀들의 여신”(Goddesse of maydens; 2300)인 다이애나가 “검고 깊은 플루토 영토의 왕비”(Qeene of the regne of Pluto derk and lowe; 2299)인 프로세르피나(Proserpina)와 동일시된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플루토에 의해 납치되어 약탈혼의 대상이 되는 프로세르피나, 남성 기사들의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비너스와 마르스 사이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하는 다이애나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박탈당하는 에밀리의 님은꼴이다. 『기사 이야기』의 공고한 가부장제 지배 하에서 여성은 철저히 무력하다.

하지만 테세우스의 정복과 통제의 기획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가 대변하는 질서의 붕괴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다. 이는 테세우스와 『기사 이야기』의 화자인 기사(Knight)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리 패터슨(Lee Patterson)은 『기사 이야기』가 당대의 퇴행적 기사 정체성의 위기를 반영하는 텍스트라고 분석하면서, 테세우스와 기사가 세계의 무질서를 문명과 질서로써 다스리고 통제하려 시도하는 반면 작가인 초서는 그 통제가 얼마나 힘겹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통제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이 얼마나 퇴행적인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198-224). 정교하게 고안된

마상 창 시합의 승자가 가려지는 순간 벌어지는 “사고”(aventure; 2703)와 아르시트의 죽음은 문명과 질서를 대변하는 테세우스의 기획을 좌절시킨다. 하지만 아르시트의 장례식을 치르고 시간이 지난 뒤, 테세우스는 다시 에밀리와 팔라몬을 불러 아르시트의 죽음을 비롯한 세상만사가 만물의 신 주피터(Jupiter)의 “예정”(purveyance; 3011)과 “계획”(ordinaunce; 3012)에 의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패터슨의 통찰에 따르면, 만물이 “원동력”(Firste Moevere; 2987)으로 대변되는 신의 섭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테세우스의 보에티우스적 세계관은 “우연/사고”(aventure)처럼 보이는 것들을 더 높은 섭리에 따른 “필연/운명”(destynee)으로 만들고, 아르시트의 죽음이 환기하는 세계의 무질서를 다시 한 번 설명 가능한 질서의 영역 안으로 포섭한다. 그러나 패터슨은 테세우스나 기사의 이러한 믿음이 작품 내외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202-07). 테세우스와 기사가 행사하고자 하는 통제와 포섭의 의지는 그 자체로 혼돈에 대한 불안을 여실히 드러내며, 그 반작용으로 형성되는 통제에 대한 강박을 환기한다(224).

테세우스가 대변하는 기사도 세계의 질서가 본질적으로 가부장제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패터슨이 제기한 무질서에 대한 통제의 강박은 여성에 대한 통제의 강박과 연결된다. 앤 래스카야(Anne Laskaya)는 질서와 문명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남성의 것인 반면, 테세우스가 통제하고자 하는 변화와 무질서는 여성적인 힘일 뿐만 아니라 여성 개개인을 통해 구현되는 힘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71-77). 새턴의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힘이 테세우스를 좌절시키는 것처럼, 여성 역시 헤아릴 수 없고, 변덕스러우며, 남성 간 질서를 교란한다. 따라서 테세우스가 외부 세계의 무질서를 다스리고 통제하고자 하는 만큼 화자인 기사 역시 서사를 통제하고자 한다면,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시도는 그 자체로 여성적 힘을 남성적 질서로 통제하려는 시도이자, 여성인물을 가부장적 질서 하에 복속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래스카야의 논의에 이어 김현진은 『기사 이야기』에서 여성에게 이루어지는 가부장적 질서의 통제가 여성의 외부 세계에 한정되며, 물리적 통제가 닿지 못하는 여성 내면의 욕망은 무질서한 것으로 남는다고 지적한다(99). 작중에서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여성의 욕망은 재현하거나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에 위치한다. 또한 남성과의 사랑을 거부하는 에밀리의 욕망이 이

성에 규범을 위반할 잠재력을 지닌 것처럼, 외부로 표현되었을 때 그 자체로 가부장적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앞에서 살폈듯 다이애나의 신전에서 에밀리 자신의 욕망이 그녀의 입을 통해 표현되는 유일한 순간 그것이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것은, “한편으로 테세우스와 화자가 대변하는 가부장제 질서가 여성을 그만큼 철저하게 구속함을 말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내면 세계’가 표출되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무질서에 대한 화자의 불안이 결코 작지 않음을 반증하기도 한다”(김현진 100). 『기사 이야기』에서 설명하고 통제해야 할 세계의 임의성과 혼돈에 대한 인식은 여성에 대한 인식, 나아가 여성의 몸과는 달리 이해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여성 내면의 욕망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아르시트의 장례식을 두고 기사는 “내게서는 들려지지 않을 것”(shall not be told by me; 2924), 자신이 설명하지 않을 것들의 목록을 상세하게 열거하는 방식으로 해당 장면을 길게 묘사한다(2919-64). 그 목록 가운데에 끼어 있는 “그녀[에밀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녀의 욕망이 무엇이었는지”(Ne what she spak, ne what was hir desir; 2944)가 열거된 나머지 항목들과는 다른 위상과 의미를 갖는다면, 이는 기사가 말하지 않기로 한 다른 대상들과는 달리 에밀리의 욕망은 이 시점에서 실제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결말에서 테세우스와 기사가 여성의 외면과 내면 모두에 대한 최종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이러한 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에밀리와 팔라몬을 불러 주피터의 섭리와 만물의 원동력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뒤, 테세우스는 에밀리에게는 “그를 남편이자 주인으로 맞도록 하라”(taken hym for housbonde and for lord; 3081)고, 팔라몬에게는 “그대의 숙녀의 손을 잡도록 하라”(taak youre lady by the hond; 3093)는 말로 두 사람을 결혼시킨다. 기사는 “그들 사이에 즉시 혼례 혹은 결혼이라 불리는 결속이 만들어졌”(Bitwixen hem was maad anon the bond / That highte matrimoigne or mariage; 3094-95)다고 서술한다. 이 결혼은 테베의 왕족인 팔라몬과 테세우스의 처제를 묶는 정치적 결합이라는 점에서 테베로 대변되는 지리적 외부 세계에 대한 테세우스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혼돈의 힘을 다스리는 더 큰 신적 섭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작동 원리를 다시금 질서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일이며, 남성에게 귀속되는 절차가

중단 유예되었던 에밀리의 거취를 확정한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물리적 통제권을 결정적으로 행사하는 일이기도 하다. 테세우스의 통제가 에밀리의 거취에 대한 물리적인 것이었다면, 화자인 기사는 에밀리의 내면 세계라는 혼돈의 영역마저 안전하게 통제하려 시도한다. 텍스트의 결말에 이르러 기사는 “에밀리가 그를 다정하게 사랑하고, 그는 그녀를 다감하게 사랑하니, 둘 사이에는 질투나 다른 불화의 말이 전혀 오가지 않았다”(Emelye hym loveth so tendrely, / And he hire serveth so gentilly, / That nevere was ther no word hem betwene / Of jalousie or any oother teene; 3103-06)는 진술로 서사를 매듭짓는다. 남성과의 이성애 관계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던 여성이 남성에게 물리적으로 귀속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자발적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결말을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테세우스와 기사에게 『기사 이야기』의 결말은 무질서한 세계를 성공적으로 문명화하는 결말이자, 여성에 대한 정복과 통제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결말이 된다. 남성적 힘이 닿지 않아 혼돈의 영역으로 남겨놓아야만 했던 여성 내면의 욕망을 사랑으로 채워 넣음으로써 기사는 테세우스가 대변하는 질서와 문명의 통제가 여성이라는 타자 위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서사를 완성한다. 여성에 대한 테세우스와 기사의 통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의 자발적 사랑은 가부장제와 영합하는 로맨스 장르에 의해 인위적으로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임이 폭로된다. 기사는 아마존 출신의 에밀리가 남성에게 물리적·제도적으로 귀속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짝지어진 남성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서사를 마련하지만, 아르시트가 시합에서 승리하는 순간 “여자들이란 대체로 말하자면 모두 운명의 호의를 따라가기 마련”(wommen, as to speken in comune, / Thei folwen alle the favour of Fortune; 2681-82)이라며 운명의 변덕과 여성혐오적 수사를 구실 삼아 에밀리가 아르시트에게 “우호적인 눈길”(freundlich ye; 2680)을 던지게 만들거나, 테세우스가 신속하게 팔라몬과 에밀리를 결혼시킨 뒤 2000행이 넘는 장문의 텍스트의 마지막 10행에 걸쳐 황급히 에밀리가 팔라몬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말하곤, “이렇게 팔라몬과 에밀리[의 이야기]가 끝을 맺노라”(Thus endeth Palamon and Emelye; 3107)고 서둘러 서사와 가능성의 매듭을 지어 버리는 것이 화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대한이다. 이처럼 황급히

제시되는 에밀리의 사랑은 앞서 그녀 자신이 밝혔던 이성애 거부 의사와 상충되지만, 이를 완전히 상쇄하고 포섭할 만큼 충분한 설명은 작중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에밀리를 가부장제 질서 안으로 완전히 포섭시키기 위해 기사는 사랑이라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작동에 기대야만 한다. 래스카야의 표현을 빌리면, “통제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만큼 인위적인 고안이다”(control is possible, but it is equally an artifice; 77). 에밀리의 자발적 사랑을 설명할 방법은 그것이 테세우스와 영합하는 기사, 가부장제와 영합하는 로맨스 장르 규범의 편의를 따른다는 것뿐이다. 여지껏 작중 남성 인물들 사이에서 단 한 번도 고려 사항이 아니었던 에밀리의 자발적 의사는 그녀를 완전히 정복했노라는 확인이 필요할 때에야 비로소 호출된다. 사랑의 개입은 인위적이지만 그 위력은 절대적이다. 사랑 너머의 가능성은 상상되지 않고, 상상될 필요도 없다. 사랑을 통해 에밀리는 비로소 가부장제 안으로 완전히 포섭되고, 정복된다.

『기사 이야기』에서 여성에게 이루어지는 통제는 철저한 만큼 그 실패에 대한 불안을 전제하고, 그런 만큼 더욱 철저하고 교묘하다. 물리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보이던 통제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까지 확장된다. 마치 테세우스의 연설이 주피터가 부재하고 새턴이 지배하는 세계의 음울한 전망을 신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다스리듯, 에밀리가 결국 팔라몬을 사랑하게 되었노라는 『기사 이야기』의 결말은 남성의 희망과 배치되거나 파악되지조차 않는 여성의 욕망을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다스린다. 자발적 사랑의 이름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통제는 여성의 내면이라는 혼돈의 가능성을 가부장제가 통제 가능한 영역 안으로 결정적으로 포섭한다. 하지만 초서는 필연적 섭리에 대한 테세우스의 믿음처럼 이 또한 철저하게 인위적으로 고안된 결과물이라는 사실 역시 보여준다. 와일의 독해대로 이성애 관계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던 에밀리가 중국에는 가부장 질서와 영합하는 로맨스 장르의 관습에 패배하고 정복당하는 것이라면(61), 이러한 결말을 통해 초서는 로맨스 장르의 여성 주인공에게 자신과 짝지어진 남성 주인공을 끝내 사랑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궁극적으로 로맨스 장르가 동원하는 사랑이 가부장제 질서와 철저하게 영합하고 있으며, 통제 불가능하고 파악 불가능한 여성의 내면을 통제 가능한 것, 이해 가능한 것으로 포섭하기 위한 장치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테세우스의 믿음이 혼돈으로 가득

한 세상을 이해 가능한 필연성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보에티우스적 ‘철학의 위안’의 변주이듯, 화자인 기사가 에밀리를 위해 마련하는 결말은 여성의 내면에 대해 같은 기전으로 이루어지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사랑의 위안’인 셈이다. 기사도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를 대변하는 테세우스가 아르시트와 팔라몬을 두고 “그[사랑의 신]는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지배자인가! 그의 권능 앞에서는 어떤 장애물도 힘을 쓰지 못하는도다”(How mighty and how greet a lord is he! / Ayeins his might ther gayneth none obstacles; 1786-87)라고 찬탄했을 때, 그는 비단 남성 기사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해 세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랑의 이데올로기의 권능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5. 사랑의 매트릭스와 여성 주체의 구성

로맨스 장르가 남성 주체에게 가장 중요한 타자인 여성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 탐구할 때, 궁정식 사랑이라는 특수한 이성에 관계의 모델은 그 이데올로기를 구성함과 동시에 매개로 활용된다. 로맨스의 장르적 구조 속에서 사랑은 여성에게 자발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반대로 그 자발성을 서사와 시스템에 위협적이지 않은 정도로 제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목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베르길리우스의 라비니아를 『에네아스 이야기』가 자발적 사랑의 주체 라빈으로 탈바꿈한 후, 『헨튼의 베비스』는 그렇게 자발성을 부여받은 여성이 가부장 사회의 남성에게 고유한 권위와 정체성을 위협할 가능성을 상상한다. 이러한 상상은 남성에게 여성의 내면이 무질서와 혼돈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무력으로 정복하고, 결혼해 아내로 삼거나,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양도하고 쟁탈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여성 자신의 욕망과 의사는 남성의 물리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바깥에 있다. 로맨스 장르가 가부장제와 영합해 그 정복 불가능한 영역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하고 통제하고자 한다면, 초서의 『기사 이야기』는 그 포섭과 통제가 작동하는 구조를 밝혀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초서의 기사 왕 테세우스는 가장 먼저 여성들의 땅을 정복하고 그 여왕을 아내로 삼아 아테네로 돌아왔다. 하지만 온 세상을 누비고, 정복하고, 교화하

고 통치해도, 가장 가깝고도 오래된 타자인 여성의 내면은 정복 불가능한 미지의 땅으로 남는다. 중세 로맨스가 여성을 사랑의 자발적 참여자로 초대할 때, 여성의 사랑은 남성으로 하여금 그 미지의 영역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곳을 다스려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여성의 사랑을 갈구함으로써 남성이 여성의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주목한다면, 사랑에 빠짐으로써 여성은 비로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남성의 것으로 귀속 가능해진다. 여성의 타자성이 갖는 위협은 그렇게 사랑의 매트릭스 속에서 제어된다. 남성 주체의 교화를 목적으로 대두된 궁정식 사랑의 양식은 이처럼 남성 주체의 상대역으로 동원된 여성에게 구조화된 자발성을 부여함으로써 여성 역시 또다른 사랑의 주체로 주조해 낸다. 물론 여성에게 제공되는 그 사랑의 각본은 남성을 위해 쓰인 것이다. 뒤비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성이 여성을 존중해야 할 관계의 참여자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여성이 가부장제의 “가장 무거운 족쇄”(heaviest of the shackles)를 벗게 되었노라고 정리한다(*Eleanor of Aquitaine* 104). 하지만 그는 궁정식 사랑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훈육의 장치이기도 했으며, 결과적으로 사랑의 게임이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사회적 위계를 교란하는 대신 강화했다는 사실 역시 강조한다(“Courtly Model” 263). 비록 에밀리가 팔라몬을 사랑하게 되었노라는 『기사 이야기』의 결말이 그녀가 궁정식 사랑의 여성 주체로 훈육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할지 모르나, 아마존 여전사를 안전하게 가부장 질서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 동원되는 사랑의 이데올로기가 텍스트 밖에서 실제로 여성을 통제하는 구조적 매트릭스로 작용하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결국 로맨스 속의 여성에게 사랑은 새롭게 얻어낸 자발성과 자율성, 새로운 주체됨의 증표이자, 그 주체성마저 기실 더 교묘한 통제를 위해 고안되고 동원된 것이라는 역설의 방증일 것이다.

인용문헌

Andreas Capellanus. *The Art of Courtly Love*. Trans. John Jay Parry. New York: Columbia UP, 1960.

Chaucer, Geoffrey. *The Riverside Chaucer*. Larry D. Benson, gen. ed. 3rd ed.

- Boston: Houghton, 1987. Oxford: Oxford UP, 1988. 2008.
- Crane, Susan. *Insular Romance: Politics, Faith, and Culture in Anglo-Norman and Middle English Literature*.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6.
- _____. *Gender and Romance in Chaucer's Canterbury Tales*. Princeton: Princeton UP, 1994.
- Desmond, Marilyn. *Reading Dido: Gender, Textuality, and the Medieval Aeneid*.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94.
- Duby, Georges. *Eleanor of Aquitaine and Six Others*. Vol. 1 of *Women of the Twelfth Century*. Trans. Jean Birrell. Chicago: U of Chicago P, 1997.
- _____. "The Courtly Model." Trans. Arthur Goldhammer. *Silences of the Middle Ages*. Ed. Christiane Klapisch-Zuber. Cambridge, MA: Belknap UP, 1992. Vol. 2 of *A History of Women in the West*. Georges Duby and Michelle Perrot, gen. eds. 5 vols. 1992-94. 250-66.
- Eneas: A Twelfth-Century French Romance*. Ed. and trans. John A. Yunck. New York: Columbia UP, 1974.
- Erwin, Bonnie J. "A Good Woman Is Hard to Find: Conversion and the Power of Feminine Desire in *Bevis of Hampton*." *Exemplaria* 23.4 (2011): 368-89.
- Fellows, Jennifer. "Mothers in Middle English Romance." *Women and Literature in Britain, 1150-1500*. Ed. Carol M. Meale. Cambridge: Cambridge UP, 1993. 41-60.
- Four Romances of England: King Horn, Havelok the Dane, Bevis of Hampton, Athelston*. Ed. Ronald B. Herzman, Graham Drake, and Eve Salisbury. TEAMS Middle English Texts. Kalamazoo: Medieval Institute, 1999. Robbins Library Digital Projects. Web.
- Gaunt, Simon. "From Epic to Romanc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Roman d'Eneas*." *Romantic Review* 83.1 (1992): 1-27.
- _____. *Gender and Genre in Medieval French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Gravdal, Kathryn. *Ravishing Maidens: Writing Rape in Medieval French Literature and Law*.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91.

- Laskaya, Anne. *Chaucer's Approach to Gender in the Canterbury Tales*. Cambridge: D. S. Brewer, 1995.
- Nolan, Barbara. *Chaucer and the Tradition of the Roman Antique*. Cambridge: Cambridge UP, 1992.
- Patterson, Lee. *Chaucer and the Subject of History*. Madison: U of Wisconsin P, 1991.
- Saunders, Corinne. "Gender, Virtue and Wisdom in *Sir Bevis of Hampton*." *Sir Bevis of Hampton in Literary Tradition*. Jennifer Fellows and Ivana Djordjević, eds. Cambridge: D. S. Brewer, 2008. 161-75.
- Tin, Louis-Georges. *The Invention of Heterosexual Culture*. Trans. Michaël Roy. Cambridge: MIT P, 2012.
- Weisl, Angela Jane. *Conquering the Reign of Femeny: Gender and Genre in Chaucer's Romance*. Cambridge: D. S. Brewer, 1995.
- 김현진. 「초서의 '나약한 수소': 『기사 이야기』 다시 읽기」. 『중세르네상스영문학』 16.1 (2008): 77-111.

ABSTRACT

A Land Unconquerable, yet the Closest: Medieval Romance and the Paradox of the Female Voluntary Love

Seonoh Kim

This paper explores how the medieval romance introduces the concept of female voluntary love both as an imagination of the female desire and as a possible means to control it by focusing on the heroines in *Roman d'Enéas*, *Bevis of Hampton*, and Geoffrey Chaucer's *The Knight's Tale*. As a conqueror, each male protagonist in the three texts vanquishes the outer landscape surrounding him, while also seeking to subjugate the incorporate realm of the female/feminine through the means of love. The rituals of courtly love codify the lovers' mutual engagement, emphasizing the idea of female consent and desire in the newly-prevalent realm of the heterosexual erotic love. *Roman d'Enéas* transforms Vergil's silent Lavinia into lovestruck Lavine, making the *fin'amor* between Eneas and Lavine fundamental for the narrative of founding a legitimate empire. In fact, Lavine's spontaneous passion for Eneas functions only in favor of the male protagonist, and it is disclosed that the female voluntariness in the codes of courtly love is not, after all, exclusive of subtler compulsion; rather, it is conditioned to direct the female desire into an unavoidable, exploitable emotion. In *Bevis of Hampton*, the protagonist's adulturous mother presents female desire as inherently threatening. The text seeks to resolve the problem of uncontrollable female sexuality through Josian, a pagan heroine whose voluntary love

for Bevis impels her to uphold her virginity and fidelity for him. The prevalent misogyny in *Bevis of Hampton* leaves Bevis disregarding the codes of courtly love, while imputing the desire of love exclusive to Josian. However, in emphasizing Josian's implicit voluntariness, the text renders her sexual autonomy almost indomitable, resonant with the hagiographical tradition of Christian women saints. *Bevis of Hampton* utilizes female voluntary love as a resolution to bridle the unreliability of female desire, only to reveal the bare mechanisms of it; in the world of *Bevis of Hampton*, love is a woman's desire, as well as a man's convenient, if not potentially backfiring, tool to control her. Finally, the ideology of love in medieval courtly romance is critically examined in *The Knight's Tale* through Theseus' attempt to subjugate the feminine arbitrariness and the arbitrary female under his reign and control. Theseus' final speech encompasses once again the chaotic world within his idea of inevitable, ultimate order, only to show his restless anxiety in controlling it; so is the marriage of Emily to Palamon, who eventually is said to share mutual love with him despite her initial wish to remain a virgin. Confined within the genre, Emily is left with no choice but to "voluntarily" love her husband. *The Knight's Tale* suggests that Emily's love itself is an ideological construct.

Key Words *Roman d'Enéas, Bevis of Hampton, The Knight's Tale, Geoffrey Chaucer, medieval romance, courtly love, feminism, voluntariness, subjectivity, female desire*

